

북

세상을 움직이는 병에 걸린 사람들

“약간의 광기를 지닌 ‘경조증’ 환자들이 미국을 키웠다”

조증

존 가트너 지음·조자현 옮김

역사는 광기(狂氣)와 우연의 소산이라고 한다. 남들 눈엔 무모하기만 한 열정과 비이성적 자신감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인물들이 역사를 바꾼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존 가트너 교수(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는 저서 ‘조증(躁症)’에서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약간의 광기를 지닌 경조증(輕躁症) 환자, 즉 하이포마니아(hypomania)들이 신대륙 미국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이민자인 자신은 미국인들의 유전자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멈출 줄 모르는 열의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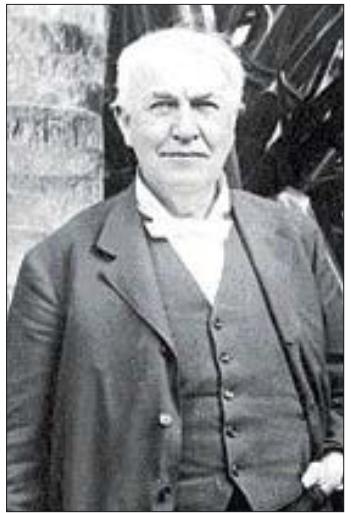
하이포마니아들은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출타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생각과 말, 행동, 의사결정이 빠르다. 지나칠 정도로 거대한 야망을 쫓고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ول인’ 한다. 자신이 아주 뛰어나고 특별하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카리스마가 넘치고 설득력이 뛰어나다. 주위에 적을 만드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비전이나 사명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인다. 충동에 잘 사로잡히고 잠자는 것도 잊고 일에 몰두하는 일 중독자들이 많다.

저자는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이끈 위인들에게서 하이포마니아의 이런 특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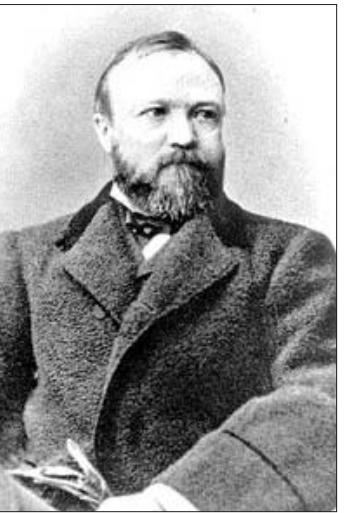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에서 금광을 찾아



콜럼버스



에디슨



카네기

예루살렘 탈환에 이용하려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하고 마침내 항해에 나선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는 ‘과대망상’이 콜럼버스를 신대륙으로 이끈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헌법제정에 공헌한 초대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출세 기회를 잡기 위해 전쟁이 터지기만 기다린 하이포마니아였고, 퀼팅왕 앤드루 카네기는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던 이상주의자였다.

인간 계보 지도를 최초로 완성한 크레이그 벤더도 ‘미치광이’ 과학계의 ‘이단아’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 조증 기질이 없었다면 유전학의 새 지평을 열 수 없었을 것이다. 영화 ‘비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작한 레이비드 셀즈니크와 영화사 MGM을 설립한 마이어 가문도 거만해보일 정도로 지나친 자신감, 과상한 아이디어, 지나친 낙관주의, 이상주의 등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조증을 감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증은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열망일까? 현란하다 못해 무모하기까지 한 투자기법으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를 물고온 월가의 투자자들 또한 하이포마니아가 아닐까?

저자는 조증이 주변을 불행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임은 인정하면서도, 인류 사회의 진보를 이끄는 존재하는데 방점을 찍는다. 하이포마니아는 ‘세상을 움직이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이 책은 ‘하이포마니아’라는 색안경을 통해 본 미국사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이 어떻게 신대륙을 건설했는지, 부를 어떤 방식으로 축적하고, 미국 고유의 실용주의적인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신비로운’ 문화가 있기에 하이포마니아가 미국인만의 유전자라는 저자의 주장에는 언뜻 수긍이 안 같다. 〈살림 Biz·1만7천원〉

/김주정 기자 jjnews@kwangju.co.kr

‘악의쾌락’ 변태에...

숨겨진 내면의 본능

‘악의쾌락, 변태에 대하여’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엘리자베스 루디네스코가 인간 내면에 감춰진 변태와 도착심리를 정신분석학, 문학, 철학 등을 토대로 탐구한 책이다.

중세의 신비주의 고행자부터 15세기 아동 살인마 징 드레, ‘사디즘’을 탄생시킨 18세기 작가 사드, 야우슈비즈의 살인마들, 소아성애자와 테러리스트까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도착자들과 그들의 잔혹 행위를 분석했다.

저자는 도착증에 대해 “예술이나 창작,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한 솔고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코의 서재·1만3천500원〉

/이은미기자 emlee@

치밀한 고증으로 재구성한 인문 팩션

조선의 승려는 북벌을 꿈꿨다 1, 2

이덕일 지음

순천 선암사, 구례 화엄사, 부산 통도사, 범어사, 등화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조선 숙종 때 재건축됐다는 점이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숭유불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기 든 불교 세력을 회